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실존심리학적 고찰

이 순 열[†]

도로교통공단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안전에 대해 실존심리학적 관점의 고찰을 실시하였다.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주의 심리학적 논의들을 통해서 실존적 과제로서 ‘위험’을 파악하였으며, 실존적 욕구로서 ‘안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실존적 과제의 미해결성과 실존적 욕구의 비충족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은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실존적 직면과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과 발현된 현상적 상태를 통해 문제적 고착 상태에 놓여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신호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문제적 고착 양상은 발현된 현상에 대칭적인 특성과 상태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실존심리학적 관점으로 ‘위험’과 ‘안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인재형 사고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향후 위험 감소와 안전 향상을 위한 심리학적인 접근을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실존적 주제들의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주제상태조절이론(Theme Condition Adjustment Theory: TCAT)]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위험, 안전, 실존, 주제, 세월호

[†] 교신저자 : 이순열, 도로교통공단,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685, E-mail : yeolsun@hanmail.net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기술과 기계, 자본의 폭풍과 같은 성장은 인간 정신과 자아의 혼미를 불러왔다.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의 덧없음과 손쉽게 광기로 물들어가는 이성은 과연 믿을만한 것인가 회의의 품게 했다. 실존주의 심리학은 자본에 침습당해 생기를 잃어가는 생명가와 광기로 벌거벗겨진 이성의 민낯을 대면하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나타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으로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든 선원들과 선박좌초와 구조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이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가려져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을 한숨처럼 내뱉게 된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리학 역시 사고를 유발하는 성격적 특징을 파악하는 영역에서부터 안전풍토와 문화를 고양시키는 산업·조직적 영역 그리고 인간의 오류와 실수 및 위반과 폭력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인지·행동적 영역에까지 위험 감소와 안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을 진행해 오고 있다(오세진, 1997; 한덕웅, 2003; 이종한, 2003; 이순철, 2004; 이강준, 권오영, 2005; 이영애, 2005; 노진철, 2005; 이순열, 2015c).

그러나 위험 감소와 안전 획득을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으로 빛을 바래게 되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는 조절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험의 범위가 전염병의 감염 및 전파와 치료의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적 방역과 같은 개인과 사회의 불

안 현상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견지해온 여러 가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문해 보게 된다. 자본은 성장하였고 과학기술과 사회체계는 발전하였지만 “왜 이토록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일까?” 심리학이 위험 감소와 안전 향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의 접근을 더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이순열, 2015c).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에게 그들이 가만히 있도록 지시 받은 이유와 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구조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실수나 오류 혹은 위반과 일탈 그리고 성격적 특성이나 인지·지각적 착오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보다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측면의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aslow(2012)는 현대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보처리적 접근이나 행동분석적 접근이 가진 철학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심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위험과 안전에 대해 보다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심리학적 해답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자는 위험과 안전이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성격의 문제인지를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과 안전이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과 안전을 조절하는 보다 근원적인 심리내적 원리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과 현대 산업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심리학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근원적 속성 파악과 인간 삶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심리학적 고찰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실존심리학적 관점의 접근을 제안하는 바이다.

실존주의적 관점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이영희, 1994; 박찬국, 2010; 박인철, 2013). 위험과 안전은 인간의 행동이나 지·감각적 형태 그리고 성격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모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위험과 안전의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근원적인 특성은 바로 위험과 안전이 인간이 삶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주제들이라는 것이다. 위험을 줄이는 것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부여 받게 되는 숙명적 과업이며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삶의 기본 원리이자 방향이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실존심리학적 고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위험과 안전이 가지는 실존적 주제로서의 위치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존심리학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존적 주제들에 대한 조절 방법들을 위험과 안전에 대응해 적용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의문과 조절의 원리를 실존심리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실존적 주제로서의 위험과 안전

실존주의 심리학은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실존적 주제들을 이

해하려는 심리학적 노력들을 일컫는다. 실존주의 심리학은 Schopenhauer(이서규, 2002), Kierkegaard(1992), Nietzsche(1967; 박찬국, 2014), Sartre(1996), Fromm(1963), Camus(Cooper, 2014), Jaspers(Zimmermann, 1987; 박찬국, 2010), Heidegger(2001) 등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Frankl(1995)의 의미치료(Logotherapy)와 Boss(1988) 및 May(1999)와 Yalom(2007)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실존적 인간중심 접근 이외에도 Maslow(1943, 2012)와 Rogers(1961; 주은선, 김혜원, 2013) 같은 인본주의 심리학적 접근까지도 포함하는 정신역동적 심리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에 비교되는 제3심리학의 근간이 된다.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실존적 존재로 태어났다고 규정하고 있다(Bugental, 1981). Jaspers는 ‘실존’이란 스스로의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실존적 삶’이란 실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인식적이며 감각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집중하는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이자 존재의 방향을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일체의 노력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박찬국, 2010). 실존주의 심리학 역시 지금 여기 인간이 현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삶의 방식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죽음, 위험, 고독, 소외, 무의미 그리고 불안과 같은 실존적 문제들에 직면하도록 도우며 실존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Yalom, 2007; Cooper, 2014).

인간은 탄생과 함께 죽음과 무의미를 자각하게 된다(Yalom, 2007). 죽음이라는 신체의 소멸과 유한성 그리고 무의미라는 존재 근원에 대한 맹목적 피투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인간

은 생존의 한계와 존재 의미의 결핍을 깨닫게 된다(Heidegger, 2001). Sartre(1996)는 인간의 의식은 항상 결핍되어 있는 과제를 찾아가는데 결핍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핍을 해결하려는 동기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나아가 죽음과 무의미에 대한 자각은 생존과 존재 의미를 이해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 귀결점이자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다. 죽음이라는 종착지점을 실존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는 신체적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생존의 욕구가 튀어나온다. 생존의 욕구는 성 욕구, 식 욕구, 수면 욕구, 재화획득 욕구 등과 같은 구체화된 욕구들로 표현될 수 있다(Maslow, 2012).

죽음이라는 유한성과 소멸로 귀결되는 결말에 대한 인식은 무의미의 기원이 되기도 한다(Yalom, 2007). 무의미는 육체적 유한성으로 인해 개체에 관련한 정보(의미)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Heidegger(2001)는 인간 실존의 본질은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이유를 찾아가는 실현과정이라고 하였다. 죽음을 통해 존재 이유 또한 소멸될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아실현의 욕구가 떠오르게 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인정 욕구, 인지 욕구, 심미 욕구, 자유 욕구, 사랑 욕구 등의 보다 구체적인 대상(타자)과 관계에 대한 이해 욕구 및 성장을 향한 욕구들로 발현될 수 있다(Dreyfus, 1997).

죽음과 무의미 등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풀어야 하는 과제 즉 '실존적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인간은 실존적 과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실존적 과제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실존적 욕구'라는

근원적인 삶의 동기이자 기본 원리가 된다.

Maslow(1943)는 실존적 과제에 대한 극복 동기가 삶에 대한 원리인 실존적 욕구가 위계적 순서를 가진다고 하였다. Maslow(2012)에 따르면 인간은 우선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욕구인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충족을 바탕으로 대상(타자)과의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욕구인 소속과 인정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기화된다. 그리고 소속과 인정에 대한 욕구 충족을 바탕으로 인간 실존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위계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Maslow(1943)의 욕구위계이론에 대해서는 위계적 순서와 욕구의 구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자아실현이라는 실존적 욕구들에 대한 지목은 인간 삶의 원리와 동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실존적 과제'를 인식하게 되고 인식된 실존적 과제는 '실존적 욕구'를 추구하도록 동기화 된다. '실존적 과제'의 해결과 '실존적 욕구'의 충족은 지극히 개체적인 차원에서 출발해서 무한한 대상(타자)에까지 확장되어 진다. 생존과 자아실현은 각각 죽음과 무의미라는 실존적 과제를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실존적 욕구이다. 같은 맥락으로 안전, 소속, 인정과 자아실현 등도 역시 '실존적 욕구'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실존적 과제'로는 위험, 고독, 소외, 무의미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죽음과 생존 그리고 무의미와 자아실현이 보여주는 실존적 과제와 이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실존적 욕구의 관계는 위험과 안전의 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이순열,

2015c). 실존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안전’은 ‘실존적 욕구’이다. ‘안전’은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이라는 실존적 욕구를 발생시키는 ‘위험’은 ‘실존적 과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실존적 과제인 ‘위험’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숙명적인 해결 과업으로 자연 현상계에 항상 존재하는 ‘객관적 위험’을 의미한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는 에너지의 상태와 방향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존적 과제’인 죽음은 에너지가 흩어져 사용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죽음에 대응되는 ‘실존적 욕구’로서 생존은 에너지가 모여져 사용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chrödinger, 2007; Jeremy, 2015).

실존적 과제로서의 죽음과 실존적 욕구로서의 생존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특성은 자연 현상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죽음현상과 생존현상을 설명하는 열역학 제2법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현상계는 끊임없이 엔트로피(Entropy)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엔트로피의 증가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의 증가가 바로 죽음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방향으로의 조절이 필요한데 바로 네트로피(Netropy)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자연 현상계의 대표적인 네트로피 공급 방법은 생명체가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타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증가는 대상(타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타자)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부터 개체의 실존적 과제 해결은 시작하게 된다. 반면, 실존적 욕

구의 완성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자의 결핍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과 통합시키는 단계로까지 확장할 때 가능해 진다.

자연 현상계에 적용되는 엔트로피 법칙과 네트로피 이론을 죽음과 생존 이외의 다른 실존적 주제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Jeremy, 2015). 본 연구자는 실존적 과제나 실존적 욕구 등의 실존적 주제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엔트로피 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네트로피가 공급되는 방식과 같이 각각의 실존적 주제가 나타내는 에너지의 특성(과제 혹은 욕구)과 상태(결핍 혹은 과잉)에 대칭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성과 상태가 각기 다른 대칭적 특성은 ‘실존적 과제’인 ‘위험’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 현상계에서 ‘객관적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다. 엔트로피 증가는 실존적 과제의 특성인데 ‘객관적 위험’ 역시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현상계에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증가 상태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해주는 대칭적 조절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증가는 실존적 욕구의 특성인데 자연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안전’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순열, 2015c; Schrödinger, 2007; Rio, Aberg, Renner, Dahlsten, & Vedral, 2011).

종합해 보면 실존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위험’은 ‘실존적 과제’로 ‘안전’은 ‘실존적 욕구’로 파악할 수 있다. 실존적 주제들은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에 따라 각기 다른

에너지 상태의 특성을 가진다. 실존적 과제인 ‘위험’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존적 욕구인 ‘안전’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험 해결이 개체에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노력이라면 안전 충족은 개체 차원이 대상(타자)으로 확장된 예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노력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실존적 주제들에 대한 조절은 네트로피 이론을 적용하여 각각의 실존적 주제가 나타내는 상태에 대칭적인 방향으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존적 주제들의 특성에 따른 상태적 차이를 고려한 개념 체계와 조절 방법을 주제상태조절이론(Theme Condition Adjustment Theor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실존적 불안으로서의 주관적 위험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탄생과 함께 직면하게 되는 실존적 과제들을 죽음, 위험, 고독, 소외, 무의미 등으로 지목하였다(Yalom, 2007; Cooper, 2014).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극복 과제로 지목되는 실존적 과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실존적 과제를 인식함으로써 튀어나오는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자아실현 등의 실존적 욕구들 또한 현실에서 완벽히 충족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존적 과제를 해결하려 하고 실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추동되지만 과제 해결과 욕구 충족의 상태는 일시적이다. 실존적 욕구 충족의 일시성은 다시금 실존적 욕구의 비충족과 실존적 과제의 미

해결로 돌아가는데 실존적 과제의 미해결과 실존적 욕구의 비충족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이 인간이 실존적 주제들을 다루고자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운명적인 한계이다(김재철, 조현정, 2014; Zimmermann, 1987).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 사이의 미해결과 비충족성을 Jaspers는 ‘한계상황’이라고 규정하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실존적 욕구로서 생존을 성취하기 위한 동기화를 추동시키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 개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Schrödinger, 2007; Jeremy, 2015).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에너지 상태와 방향이 각기 다른 역설적 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결국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생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 ‘한계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에 대한 완벽한 실존적 직면과 실존적 완성이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의 육체와 의식 차원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찬국, 2010).

죽음이라는 실존적 과제의 경우 인간은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소멸과 사라짐으로 완결되어 버린다. 죽음의 안티테제(Antithese)인 생존 역시 마찬가지다. 완벽한 생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는 직면하여 확인 할 수 없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는 의식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을 뿐, 개인이 신체를 통해 완벽히 체험하거나 완성된 지식체계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직면 불가능성은 인간을 볼 수 없는 시험지를 받아 든 학생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볼 수 없는 시험지를 받아 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다루어야 할 범위는 지금까지 개인의 심신을 통해 경험해 온 것들에 대한 반추나 관찰과 같은 개체적 차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식적 상상과 환경과의 관계 등과 같은 무한한 대상(타자)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죽음과 생존이라는 실존적 주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인간은 개체적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실존적 과제를 자녀라는 타자로의 확장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적 과제 해결과 욕구 충족은 개체적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환경과 대상(타자)의 과제 해결로 확장되어 질 때 비로써 가능해 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직면은 불가능하며 오직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주관적 인식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Jaspers의 ‘한계상황’은 곧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직면불가능성을 지칭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직면하는 모든 실존적 주제들은 주관성이라는 한정된 범위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실존적 문제들에 대한 직면이 주관적 인식의 범위로 한계를 가진다는 생각은 실존주의자들의 일관된 견해이기도 하다. Schopenhauer는 현상하는 사물의 실체는 오직 주관적 인식으로만 가능하며 경험적 실제성은 감각기관의 지각과 인지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이서규, 2002). Kierkegaard는 인간 실존에 대한 결론으로 주관성을 강조하였는데, 주관성이야말로 진리라고 역설하였다(이창우, 1983). 실존주의자들의 주관성에 대한 옹호와 확고한 신념은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에 대한 미해결과 비충족 그리고 직면불가능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이라는 주관적 감정을 실존적 주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

련해 준다(안상혁, 2015).

Kierkegaard(1992)는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간극이 만들어 내는 무한한 선택의 자유 상황이 현기증과 같은 ‘불안’ 즉, ‘실존적 불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실존 앞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한 인간은 ‘실존적 불안’이라는 또 다른 실존적 주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Camus는 실존적 과제의 해결과 실존적 욕구의 충족이 불가능한 인간의 한계상황에 대해서 ‘부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묘사하였다(Zimmermann, 1987; 박찬국, 2010).

Camus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려고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추구하는 부조리한 인간의 상황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돌덩이를 산꼭대기로 끌어올려야 하는 시지푸스(Sisyphus)의 운명과 같다고 하였다. 인간이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실존에 관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죽음만큼이나 확실한 진실이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존을 획득한 인간은 이상향에만 존재할 뿐, 현실은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이서규, 2002; Cooper, 2014).

인간 실존에 있어서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는 배경이며 실제로 인식되어 전경으로 떠오르는 것은 ‘실존적 불안’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직면하여 다룰 수 있는 실존적 주제의 크기는 실존적 과제와 욕구의 부조리한 관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존적 불안’의 크기와 범위만큼으로 한정되어 질 수밖에 없다.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부조리한 관계로 인한 ‘실존적 불안’의 출현은 실존적 과제인 위험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존적 과제’로 규정될 수 있는 자연 현상계의 ‘객관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위험 대비란 인간이 예견할 수 있는 범위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존적 욕구로서의 안전도 완벽히 달성될 수는 없다.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현재의 지식 체계라는 제한된 범위로 국한 될 수밖에 없다. 자연 현상계를 살아가는 인간에서 위험 해결과 안전 충족이란 결국 수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며, 일상의 위험이 낮아진 상태를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실존적 과제로서의 위험과 실존적 욕구로서 안전의 미해결과 비충족을 직면하게 되는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인식하게 된다. 위험과 안전의 부조리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느낌으로서의 실존적 불안은 위험에 대해 느끼는 고유한 인식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관적 위험’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순열, 2015c).

위험과 안전의 부조리한 관계로 발생하는 ‘주관적 위험’은 인간이 위험과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하다. 인간이 직면하여 다룰 수 있는 위험과 안전은 ‘실존적 과제’로서 ‘위험’과 ‘실존적 욕구’로서 ‘안전’의 관계가 만드는 미해결성과 비충족성 그리고 직면불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주관적 위험’의 크기 만큼이다. 주관적 위험의 범위는 지극히 개체적인 것에서 무한한 대상(타자)까지를 포함한다(이순열, 2015c).

주관적 위험이 나타내는 실존적 불안으로서의 특성은 위험과 안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위험’을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불안’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Cooper(2014)는 실존주의 심리학이 ‘실존적 불안’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존심리학적 관점에서 ‘주관적 위험’의 상태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 또한 위험 감소와 안전 획득을 위한 주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실존적 불안과 주관적 위험의 역할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실존적 과제와 욕구의 부조리함이 발생시키는 실존적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부조리한 관계는 실존적 불안을 만들어 내지만 실존적 불안이 꼭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였다. 실존적 불안의 인식 자체가 실존 직면과 완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존적 불안에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직면하여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곧 치유이자 실존의 실현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Yalom, 2007; 박찬국, 2010; Maslow, 2012).

Jaspers는 ‘한계상황’의 인식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 상태를 자각하도록 하여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Zimmermann, 1987).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인식이 실존의 직면과 완성상태를 찾아가도록 하는 나침판과 같은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실존적 불안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감정현상이 아니다. 실존적 불안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의 완성을 지향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나침판의 바늘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존적 불안은 실존적 직면과 완성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고정되어 경화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실존적 불안은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의 상태와 방향이 가지고 있는 대칭의 균형 사이

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유연한 움직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실존적 직면과 완성이란 일회적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주제들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존적 불안의 적절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실존적 불안이 유연한 움직임으로서 적절한 운동성을 획득한 상태를 Kierkegaard(1992)는 ‘창조적 불안’이라고 하였다.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은 적절성을 획득한 실존적 불안을 통해서 실존에 대한 직면과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실존 직면과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실존적 불안이 적절성을 획득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행조건이 됨을 알 수 있다.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를 통해서 실존적 불안이 실존적 직면과 완성에 필요한 유연하고 적절한 운동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존적 불안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실존의 직면과 완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신호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이순열, 2015c).

실존적 불안이 가지고 있는 나침판과 신호로서의 역할은 주관적 위험이 수행하는 역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관적 위험은 실존적 과제인 위험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이 만들어 내는 간극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적절한 운동성을 유지할 때에만 실존적 직면과 완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존적 과제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여 해결하는 것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을 온전히 충족시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 위험의 적절성 획득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다. 주관적 위험의 적절성 획득 여부는 주관적 위험이 나타내는 상태와

발현되는 현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이순열, 2015c).

실존적 불안과 주관적 위험에 대한 경험과 정보의 기능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존적 불안을 통한 실존 직면과 완성에 경험과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Schopenhauer는 실존적 주제들의 표상은 신체를 통해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의지는 신체로 존재하는데 신체는 인식과 측정 그리고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의 표상이 된다. 신체를 통한 경험이 의지와 지각 그리고 인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실마리이자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Dilthey 역시 객관적 현상으로서 실존에 대한 직면은 체험이라는 몸의 경험과 이해라는 정신적 정보의 인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인식의 기본이 되는 것은 개체의 신체 경험과 의식적 인지과정이라는 것이다(이서규, 2002). 실존주의 심리학자들 역시 몸에 체험되는 경험을 통해서 실존적 불안에 대한 직면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경험이 실존적 불안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Fromm, 1963; Boss, 1988).

Sartre(1996)는 실존에 대한 직면을 방해하는 ‘자기기만’이 일종의 ‘고의적인 무지’이기 때문에 인간실존에 대한 직면은 지식과 같은 정보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Husserl 역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밖에 없으므로 경험과 의식에 대한 주의를 통해서만 자신과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Jaspers는 실존 직면 방법으로 언어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정신적 정보로서의 인간언어, 말,

그림과 숫자 등 형이상학적 정보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Zimmermann, 1987; 박인철, 2013). 실존주의 심리학자들 역시 경험과 마찬가지로 정보로서의 지식획득과 새로운 의미부여가 실존적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험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의미의 획득이 실존적 불안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Frankl, 1995; Yalom, 2007).

이상과 같이 경험과 정보는 실존적 직면과 완성을 이루어 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실존적 불안이 가진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은 경험과 정보가 어떻게 인식되는 방향으로 공급되고 획득되는가에 따라서 변화와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실존적 과제와 욕구의 부조리한 관계가 발생시키는 실존적 불안의 경우, 경험과 정보의 체득을 통해서 실존적 불안에 대한 인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사례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받아오고 있기도 하다(Duane, 2007; Yalom, 2007; 주은선, 김혜원, 2013; Cooper, 2014; 이순열, 2015c).

실존적 불안을 직면하는 방법으로서 경험과 정보의 조절 기능은 주관적 위험이 실존적 직면으로 나아가는데도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이순열, 2015c). 경험과 정보의 공급과 변화를 통해서 실존적 과제인 위험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 사이에서 유연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주관적 위험’이 적절성을 획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경험과 정보의 공급과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관적 위험’은 유연성을 잃고 실존적 과제인 위험이나 실존적 욕구인 안전 어느 한쪽으로 고착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주관적 위험’의 고착 현상은 현존재인

인간에게 위험을 해결하고 안전을 충족시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어야 하는 나침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실존적 불안의 문제 양상과 조절원리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써 끊임없이 운동하는 실존적 불안이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Kierkegaard(1992)는 실존적 불안의 끊임없는 운동으로의 흔들림은 실존적 불안을 직면하려는 인간에게 현기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현기증은 선택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인식하면서 나타나는데 현기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포기해 버릴 수 있다. 자유로울 가능성으로서의 현기증이 실존이라는 강력한 불빛에 놀라 멈춰 서버린 사슴처럼 굳어져 움직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도록 하는 것이다.

Kierkegaard(1992)는 이러한 실존적 불안을 향한 직면의 혹독함이 절망과 죄의식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실존적 과제가 주는 무게로 인해 절망에 빠지거나 실존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존주의 심리학자들 역시 실존적 불안이 어느 한쪽의 실존적 주제로 고착되어 버려 유연한 운동성이 상실된 상태를 내적 역동의 문제 상황으로 보았다(Cooper, 2014).

실존적 불안의 적절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은 실존적 과제와 욕구가 가진 부조리한 관계로 발생된 실존적 불안 역시 팽팽한 긴장 속에서 느슨함을 조율해야 하는 역설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존의 직면과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질은 딱딱함으로 표현되는 수학(修學) 능력보다는 한층 높은 지

성과 선택에 대한 실행 의지 그리고 부조리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같은 특성들이다.

나치(Nazi)에 협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Heidegger(2001)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궁궐과 같은 이론과 체계 그리고 방법들을 구상해 놓고도 정작 움막에 기거하는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명칭이여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운동으로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존적 불안에 직면하려는 선택과 실행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Sartre, 1996).

끊임없는 운동으로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실존적 불안에 직면하여 완성을 위해 부단히 선택하고 결행할 용기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은 실현되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실존에 대한 직면과 완성을 향한 여정을 멈추는 것을 Kierkegaard(1992)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으며, Frankl(1995)은 ‘실존적 병’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실존적 불안이 운동성을 상실하고 고착되는 것에 당당히 맞서는 운명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실존적 불안이 적절한 운동성을 획득하는 것은 실존의 완성을 위해 선행적으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실존적 불안의 문제 양상 극복과 적절성 획득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실존주의 철학의 지향점과 실존주의 심리학의 적용적 견해를 바탕으로 고착현상을 나타내는 실존적 주제의 특성(과제 혹은 욕구)에 대칭되는 상태(결핍 혹은 과잉)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실존적 불안이 실존적 과제와 실존적 욕구 어느 방향으로 고착되어 인식되는지를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당되는 실존적 주제의 특성(과제 혹은 욕구)과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결핍 혹은 과잉)에 대칭되는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서 실존적 불안이 적절한 운동성을 회복하도록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실존적 과제는 개체 수준에서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나 결핍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실존적 욕구는 타자의 요구나 결핍을 해결하는 것을 개체의 과제해결과 동일한 차원으로 통합하는 수준에까지 확장될 때에만 충족이 가능할 수 있다. 실존적 욕구 충족이 개체를 뛰어넘어 타자의 과제 해결에까지 확대되는 것은 실존적 과제가 주관이라는 지극히 개체적인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실존적 욕구는 무한한 타자에 이르러 완성되는 에너지의 확장성을 특성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 실존이 개체로서의 자신을 포함하여 타자라는 지금 여기의 무한한 ‘자신들’을 통해서 제대로 직면되고 완성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기대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시대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수많은 타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실존적 주제들을 해결해 간다. 따라서, 실존 직면과 완성의 핵심은 실존적 과제의 결핍을 인식하는 ‘나’를 위한 해결 노력을 확장해서 ‘타자’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타자의 결핍과 요구에 부응하는 실존적 욕구의 충족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 직면과 완성을 위해 실존적 주제들은 과제와 욕구, 자신과 타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유연한 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험과 정보라는 에너지의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존적 주제들은 과제나 욕구 어느 한쪽으로 고착되어 버리기 쉽다. 실존적

불안의 고착은 실존적 과제에 머물러 버리는 양상과 실존적 욕구에 머물러 버리는 양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표 1). 과제에 고착된 양상과 욕구에 고착된 양상은 각각의 특성이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결핍 혹은 과잉)를 가지는데 이에 대한 조절방법은 고착된 실존적 주제의 특성과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에 대칭되는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실존적 불안의 과제 고착 양상과 조절

실존적 과제에 대한 고착은 실존적 과제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과제 민감 고착)과 실존적 과제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과제 둔감 고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서 발생하는 고착(과제 민감 고착)은 과제 해결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제 해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제에 대해 불

안을 기본적인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과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환경을 과제와 역경을 부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과제 해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Duane, 2007).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욕구 충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과제 해결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과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과제 둔감 고착)은 과제 해결에 둔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제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

표 1. 고착양상에 따른 실존적 불안의 현상적 구분

고 착 양 상	(과제 민감 고착)		(과제 둔감 고착)	
	과제 고착	원인: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 결핍 증상: 과제 민감, 불안 및 분노, 해결 몰입 적대적 환경평가 조절: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 공급	과제 고착	원인: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 과잉 증상: 과제 둔감, 타자 해결 무시, 해결 무시 편향적 환경평가 조절: 욕구 비충족 경험과 정보 공급
	(욕구 민감 고착)		(욕구 둔감 고착)	
	욕구 고착	원인: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 결핍 증상: 욕구 민감, 의존과 투사, 회피 및 부인 유용성 환경평가 조절: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 공급	욕구 고착	원인: 욕구 충족 경험 및 정보 과잉 증상: 욕구 둔감, 기만적 관점, 충족 유보 기만적 환경평가 조절: 과제 미해결 경험과 정보 공급

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과제 해결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현상적 미해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과제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문제가 없다는 자기중심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Yalom, 2007; 이관춘, 2015).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욕구 비충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과제 해결 경험과 정보의 과잉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과제를 둔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이순열, 2015a, 2015b, 2015c).

실존적 불안의 욕구 고착 양상과 조절

실존적 욕구에 대한 고착은 실존적 욕구의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욕구 민감 고착)과 실존적 욕구의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욕구 둔감 고착)으로 구별될 수 있다.

첫 번째,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욕구 민감 고착)은 욕구 충족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욕구 충족에 민감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황이나 타인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대상에게 투사하거나 대상의 결핍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 버릴 수도 있다. 또한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욕구 충족에 대해서 오히려 회피하거나 부인하려는 역설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이관춘, 2015).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제 해결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욕구 충족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이순열, 2015a, 2015b, 2015c).

두 번째,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욕구 둔감 고착)은 욕구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욕구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욕구에 대해서 기만적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을 욕구 충족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욕구 비충족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욕구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해당 욕구 충족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거나 ‘할 만큼 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Duane, 2007).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과제 미해결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욕구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욕구를 둔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이순열, 2015c).

실존적 불안의 고착 양상에 따라 대칭되는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조절방법은 주관적 위험이 나타내는 고착 양상의 조절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관적 위험의 문제 양상과 조절원리

실존적 과제인 위험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의 부조리한 관계에 대한 직면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관적 위험이 나타내는 문제적 양상을 극복하는 것이 선행적인 과제이다.

주관적 위험의 문제 양상 극복과 적절성 회복 방법은 고착되어 있는 실존적 주제에 대칭되는 특성과 상태(결핍 혹은 과잉)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의 문제 양상은 실존적 과제인 위험에 머물러 버리는 고착 양상과 실존적 욕구인 안전에 머물러 버리는 고착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표 2).

주관적 위험의 과제 고착 양상과 조절

주관적 위험이 실존적 과제인 위험에 고착된 양상은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위험 민감 고착)과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위험 둔감 고착)으로 구별된다.

첫 번째,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서 발생하는 고착은 위험 해결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 해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 불안을 기본적인 반응으로 나타낸다. 위험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은 환경을 위험을 고조시키는 주체로 인식하면서 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위험 해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해결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표 2. 고착양상에 따른 주관적 위험의 현상적 구분

고 착 양 상	(위험 민감 고착)		(위험 둔감 고착)	
	위험 고착	원인: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 결핍 증상: 위험 민감, 불안 및 분노, 해결 몰입 적대적 환경평가 조절: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 공급	위험 고착	원인: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 과잉 증상: 위험 둔감, 타자해결 무시, 해결 무시 기만적 환경평가 조절: 안전 비충족 경험과 정보 공급
	(안전 민감 고착)		(안전 둔감 고착)	
	안전 고착	원인: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 결핍 증상: 안전 민감, 의존과 투사, 회피 및 부인 유용성 환경평가 조절: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 공급	안전 고착	원인: 안전 충족 경험 및 정보 과잉 증상: 안전 둔감, 기만적 관점, 충족 유보 기만적 환경평가 조절: 위험 미해결 경험과 정보 공급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전 충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남성 초보운전자를 생각해 보자. 초보운전자는 위험한 교통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할 것이며 동시에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해결하는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위험한 교통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 해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반응은 불안울 기본으로 한다. 위험에 민감한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들이나 교통 상황을 자신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한 교통상황을 해결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 해결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한 교통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증가할 수도 있다(이순열, 이순철, 2007b).

초보운전자의 위험한 교통상황에 대한 해결 경험이나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초보운전자가 안전을 느끼면서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운전한 경험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교통참여자들의 위험을 감소하도록 운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위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교통 환경[대상(타자)]의 위험을 줄이는 운전 방법을 익혀서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타자의 위험 해결과 자신의 위험 해결이 통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초보운전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당면한 위험해결에만 민감한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위험 둔감 고착)은 위험 해결에 둔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타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위험이 해결된 상태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타자의 위험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타자의 위험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만 해결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안전 비충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습적인 남성 음주 운전자를 생각해 보자.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사고나 단속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경험이나 정보가 과잉된 상태로 위험 해결에 둔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경험이나 정보가 과잉된 상태로 위험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음주운전이 사고나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경험과 정보의 과

인으로 인해 음주운전이 가진 교통사고와 단속 위험을 낮게 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가 없었다는 경험이나 정보가 과잉된 상태로 위험 해결에 둔감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위험하지 않으며 자신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편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이순열, 이순철, 2007a).

음주운전 단속이나 사고가 없었던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안전 비충족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운전자가 다른 교통참여자들을 위협하게 만드는 음주운전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음주운전이라는 다른 교통참여자들을 위협하게 하는 행위가 자신이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시간, 비용, 편리함 등)에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이 발생시키는 위험에 대해서 과도하게 둔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위험의 욕구 고착 양상과 조절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이 실존적 욕구인 안전에 고착된 양상은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안전 민감 고착)과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고착(안전 둔감 고착)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안전 민감 고착)은 안전 충족에 민감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 충족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 충족을 타자(운이나 타인 등)에게 의존하는 수동적 자세를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위험을 타자에게 투사하거나 타자의 위험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 안전 충족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펼쳐야 할 적극적인 노력은 오히려 회피하거나 역설적으로 부인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위험 해결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성 초보운전자를 생각해 보자. 초보운전자는 안전한 교통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하며 동시에 안전 충족에 대해서는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안전한 교통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 충족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반응은 적극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산한 교통상황이나 다른 운전자의 배려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초보운전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한 교통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 충족에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 버리는 회피적 선택이나 안전해

지기 위해서 운전을 포기해 버리는 역설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이순열, 이순철, 2007b).

초보운전자의 안전한 교통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결핍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 해결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보운전자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위험한 교통 상황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보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동차 조작능력이나 운전 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상황에서의 안전 충족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한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안전 둔감 고착)은 안전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안전 충족에 대해서 기만적인 관점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을 안전 충족이 완료된 상태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현상적으로 안전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 충족을 둔감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자의 안전 충족 상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거나 ‘할 만큼 했다’는 식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이순열, 2015c).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

미해결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기존의 안전 충족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습적인 여성 음주 운전자를 생각해 보자. 음주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을 하여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한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인 동시에 안전 충족에는 둔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경험이나 정보가 과잉된 상태로 안전 충족에 둔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음주운전을 그만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이 되는 것은 운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관점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음주운전으로도 항상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인식하면서 현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단속의 위험에 대해서는 기만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한 음주운전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로 안전 충족에 둔감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자의 교통 안전 충족 상태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충분하다’거나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안전 충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장석용, 정현영, 백상금, 이순열과 류준범, 2013).

음주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상태에서의 고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칭적인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 미해결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이 자신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지를 체험하는 경험을 하거나 관련한 정보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지불하게 되는 대

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에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문제 양상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논 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까지 한국 사회는 어쩌서 이토록 안전해지기 어려운 것일까? 현대 과학과 사회 체계 그리고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위험을 줄이고 안전을 획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반복되는 인재형 참사의 발생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 사회와 구성원들은 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기대에 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이 증가되어가고 있음을 전 세계적 현상으로 목도하게 된다. 국가 간 전쟁은 줄었지만 차별과 반목의 갈등은 전 지구를 테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교통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자살률은 증가했으며, 질병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출산율 역시 줄어들고 있다. 자살은 증가되어 가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환경오염과 기후의 변화는 심각해지고 있다 (Ulrich, 2014; 이순열, 2015c).

위험은 모습만 바꿀 뿐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 감소와 안전 획득을 위한 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위험의 얼굴만 바꾸는 표피적인 대응이 아니라 위험의 근원에서

부터 시작하는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순열, 2015c). 이에 본 연구자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실존주의의 철학적인 기반과 심리학적 적용적 견해를 반영한 고찰을 제안하였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파악을 위해서 실존주의적 자세를 견지한 접근이 시도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존적 고찰을 통해 주관적 위험이 실존적 직면과 완성을 향해가는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발현되는 현상을 통해서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주관적 위험이 유연한 움직임을 잃고 고착되는 문제적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적절한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존적 관점으로 주관적 위험이 한국 사회에 발현되는 현상적 상태를 살펴보면 위험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 장소만 바뀌는 표면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원들의 통제에 따랐고 해경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의 남겨진 승객 304명을 아무도 구해내지 못한 현실은 위험 감소와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에 보내지는 현상적 신호를 제대로 파악할 때 문제 양상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참사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당면한 위험 해결에만 골몰한 나머지 타자들은 오히려 위험에 빠트리는 선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개체적 위험 해결에만 매몰되어서 타자의 위험 해결을 자신의 위험 해결로 통합시키는 안전 충족 상황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

다. 타자의 위험 해결이 자신의 위험 해결로 통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에서는 아무리 체계를 정비하고 법규를 제정하며, 재정적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적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위험 해결에만 골몰하는 한계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세월호의 구조하지 못한 304명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구해 낼만큼 타자의 위험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만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참담한 증인들이 되어 버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밝힌 실존주의적 고찰에 따르면 안전의 충족은 개체의 위험을 해결하는 차원이 확장되어 타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를 위해 결핍을 호소하는 타자의 요구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부응하려는 수준까지 도달하여 타자의 위험 해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경험과 정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과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들로 과잉되어 있다. 타자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남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골몰하는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은 침몰되어가는 승객들을 구해낼 만큼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탈출할 기회를 얻고, 참사의 책임을 면해서 자신을 보존하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기만적인 전술을 도처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해결을 개체적인 차원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타자의 위험 해결까지 확장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러한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이 보내오는 현상적 신호들을 면밀히 살펴보자. 우리 중 누구라도 2014년 4월 16일 좌초된 세월호의 승객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국사회와 구성원들은 개체적 차원에서만 위험을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한계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진실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핍을 호소하는 타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부응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이 역설적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는 실존적 완성으로 나아가게 방법이 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해결하고 안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의 공급, 즉 노력(시간과 재화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험의 해결을 넘어 안전의 충족을 원한다면 자신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들을 타자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와 개인이 안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준거는 결핍을 겪고 있는 타자들이 보내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과 재화를 어떻게, 얼마나 투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존적 불안으로서 주관적 위험이 실존적 과제인 위험이나 실존적 욕구인 안전 어느 한쪽 방향에 고착되는 문제적 양상을 나타낸다면 대칭적인 상태와 방향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서 적절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한국 사회의 위험과 안전이 발현된 현상적 상태로 파악하고 참사에 연루된 각각의 주체들에 대해 연구자가 주장한 실

존적 주제의 고착 상태에 대칭적 방향으로 경험과 정보를 공급해주는 조절방법(주제상태조절이론: TCAT)을 적용해서 살펴보자.

우선 세월호 참사의 가해 주체인 해경과 선원들 그리고 관계기관 및 책임 있는 당사자들은 이제까지의 편법적인 선박운항과 관리·감독 그리고 사적인연으로 얹혀있는 부정부패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경험과 정보가 만연된 상태였다. 편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위험이 만연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지나갔던 경험과 정보가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에게는 과잉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위험을 해결한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의 위험에 둔감한 고착 양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안전 미획득 경험과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경과 선원 그리고 관계기관과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만성적인 편법과 부정부패의 결과가 타인들의 위험 해결에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이것이 또한 얼마나 심각하게 자신들의 위험 해결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타자의 위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자신들이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경과 선원들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핵심적인 경험임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가해자들과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무사안일이 불러온 참상에 대해서 가·감 없이 책임지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공급함으로써 안전 충족을 소홀히 여긴 책임과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

운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처리가 한국에서 발생된 여타의 다른 사고들처럼 고위 공직자는 조사에서 빠질 수 있다거나 책임을 면하는 경험과 정보가 주어진다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또 다시 세월호에서 숨겨진 304명의 승객들을 운 없는 타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자신과는 상관 없는 타자에게 발생된 채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자신의 현실적 위험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한계상황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은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이 위험과 안전에 대해 이제까지 대응해온 표피적인 조치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감 없는 조사와 명확한 처벌은 한국 사회의 위험 해결을 안전 충족 수준으로 진일보시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치가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축소시키거나 구조 실패의 근원적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과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관적 위험의 또 다른 문제적 고착 양상인 과도하게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서 신경증적인 불안과 분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위험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인식되는 불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노로 바뀔 수 있

는데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의 불씨가 되어 사고나 사건을 발생시킬 것이다.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주관적 위험이 적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명확하게 공급되어야 할 경험과 정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경제 논리와 정치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명명백백히 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밝히는 것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책임 있는 자들이 책임을 지고 위로받아야 하는 이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는 경험과 정보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의 직·간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심리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금전적 결핍을 충족 받고 싶거나 국가 기관의 해체나 신설 혹은 법령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국민의 안전 향상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에 놓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증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뢰의 결핍과 진실의 요구에 책임 있는 세력들이 제대로 부응하는 경험과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강자들의 기득권보다 다수의 결핍된 사회 구성원들의 아픔에 반응하고 슬픔을 씻겨주기 위해 진실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는 경험과 정보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위험과 안전에 대해 적절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자기 편향적인 기만에 빠져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경증적 불안으로 안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고착 양상을 조절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2015년 메르스(MERS) 사태가 한국 사회를 불신과 불안

의 위험으로 몰고 간 것은 결코 병원균의 전염력이나 치사율 때문만이 아니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에서 나타난 불신과 불안 그리고 분노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서 이제껏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준 적이 없었다는 경험과 정보가 과잉된 결과이다. 위험을 해결한 경험과 정보가 결핍된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은 안전 충족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주장하였다. 안전이라는 실존적 욕구의 충족 방법은 결핍을 호소하는 타자의 요구에 반응하고 부응하려는 진실되고 진심어린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다(이순열, 2015c). 따라서, 만약 메르스(MERS) 사태에 대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처가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메르스(MERS) 사태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절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존심리학적 관점으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은 위험 감소와 안전 향상을 위해서 기울여야 할 근원적인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 중 가장 큰 것은 위험과 안전에 관련한 실존심리학적 선행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의 부족은 본 연구의 독창성의 반영이 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론적 근거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밝혀낸 내용들이 보다 다양한 실존적 주제들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재철, 조현정 (2014). 키에르케고어의 불안 개념에 대한 임상적 해석, 철학논집, 37, 117-148.
- 노진철 (2005). 현대 위험사회에서의 위험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 1, 33-48.
- 박인철 (2013). 에드문트 후설, 경기도: 살림.
- 박찬국 (2010).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 실존철학의 재조명을 통하여, 경기도: 집문당.
- 박찬국 (2014). 초인수업, 경기도: 21세기북스.
- 안상혁 (2015). 불안, 키에르케고어의 실험적 심리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오세진 (1997). 효율적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행동주의적 연구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0(1), 1-20.
- 이강준, 권오영 (2005). 안전시스템 구축과 심리학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7(3), 299-310.
- 이관춘 (2015). 니체 사상에 비취본 세월호 참사와 성인교육의 과제, 한국성인교육학회지, 18(3), 1-21.
- 이서규 (2002). 삶과 실존철학, 서울: 서광사.
- 이순열 (2015a). 위험감수성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8(1), 61-74.
- 이순열 (2015b). 위험감수성(Risk Sensitivity) 측정문항 개발과 그 적용의 타당성: 불안정서와 위험지각을 중심으로, 교통연구, 22, 1, 61-74.
- 이순열 (2015c). 한국 사회의 위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과 제언: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709-739.
- 이순열, 이순철 (2007a). 음주 운전자들의 운전확신수준 특성이 교통사고 위험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이용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1), 43-55.
- 이순열, 이순철 (2007b). 초보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이 위험운전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이용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111-125.
- 이순철 (2004). 교통행동 연구의 경향성 분석을 위한 문헌고찰: 1990년 이후 한국 교통심리학의 연구경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18.
- 이영애 (2005). 위험지각 연구의 최신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17(3), 1-18.
- 이영희 (1994).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철학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1-20.
- 이종한 (2003). 사고공학화에 대한 심리학적 제의: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제와 대안 모색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안내하면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1-14.
- 이창우 (1983). 니체, 사르트르, 프로이트, 키르케고르. 서울: 종로서적.
- 장석용, 정현영, 백상금, 이순열, 류준범 (2013).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행동특성별 대책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TPB) 모형을 중심으로, 교통연구, 20(2), 45-58.
- 주은선, 김혜원 (2013). 인간 중심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관련 국내연구의 내용분석(1977년 - 2012년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2), 351-369.
- 한덕웅 (2003). 한국 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특집호), 35-55.
- Boss, M. (1988). Recent Considerations in

- Daseinsanalysis, *The Humanistic Psychologist*, 16(1), 58-73.
- Bugental, J. F. T. (1981). *The Search for Authenticity: An Existential-Analytic Approach to Psychotherapy*. (Exp. edn) New York: Irvington.
- Cooper, M. (2014). 실존치료[Existential Therapies]. (신성만, 가요한, 김은미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3년 출판).
- Dreyfus, H. L. (1997). *Being-in-the-World: A Commentary on Heidegger's Being and Time, Division 1*. Cambridge, MA: MIT.
- Duane, S. (2007). 성장심리학: 건강한 성격의 모형[Growth Psychology: Models of the Healthy Personality]. (이혜성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1977년 출판).
- Frankl, V. E. (1995). 죽음의 수용소에서[Man's Search for Meaning]. (김충선 역). 서울: 청아출판사, (원전은 1984년 출판).
- Fromm, E. (1963). *The Art of Loving*. New York: Bantam.
- Heidegger, M. (2001). Zollikon Seminars: Protocols -Conversations-Letters. (Trans. F. Mayr and R. Aska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Jeremy, R. (2015). 엔트로피[Entropy]. (이창희 역). 서울: 세종연구원, (원전은 1980년 출판).
- Kierkegaard, S. (1992).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Philosophical Fragments. Vol. 12:1. (Trans. H. V. Hong and E. H. Ho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46).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Maslow, A. H. (2012). 존재의 심리학[Toward a psychology of being]. (정태연, 노현정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전은 1999년 출판).
- May, R. (1999). Creativity and the unconscious' *Review of Existential Psychology and Psychiatry*, 24: 33-9.
- Nietzsche, F. (1967). *Thus Spake Zarathustra*. (Trans. T. Common.) London: Allen and Unwin. (Original work published 1883).
- Rio, L., Aberg, J., Renner, R., Dahlsten, O., & Vedral, V. (2011). The thermodynamic meaning of negative entropy. *Nature*, 474, 61-74.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Therapy*. London: Constable.
- Sartre, J. P. (1996). 존재와 무[Being and Nothingness: An Essay on Phenomenological Ontology]. (정소성 역). 서울: 동서문화사, (원전은 1960년 출판).
- Schrödinger, E. (2007). 생명이란 무엇인가, 정신과 물질[What is life? and Mind and Matter]. (전대호 역). 서울: 궁리출판, (원전은 1967년 출판).
- Ulrich, B. (2014).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Risikogesellschaft]. (홍성태 역). 서울: 새물결(원전은 1986년 출판).
- Yalom, I. D. (2007). 실존주의 심리치료 [Existential Psychotherapy]. (임경수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0년 출판).
- Zimmermann, F. (1987). 실존철학[Einführung in Existenzphilosophie]. (이기상 역). 경기도: 서광사, (원전은 1977년 출판).

논문 투고일 : 2016. 05. 05
1차 심사일 : 2016. 05. 13
게재 확정일 : 2016. 07. 19

Existential Psychological approaches about risk and safety

Soon yeol Lee

The Road Traffic Authority

This study conducted a review of the existenti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about the risks and safe. The risk was identified as existential task through the existential philosophy and psychology discussed were the safety regulations as existential need. As existential anxiety that is caused by unmet and insufficiency of the existential needs and the existential task that was presented to identify the subjective risk. Subjective risk as existential anxiety, and suggested that serves as a compass to advance to the completion and the facing the existential. In addition, existential anxiety as a subjective function as a signal that can identify the problem conditions that expressed phenomena. Problematic aspect of a subjective risk was suggested that it can be adjusted through a method for supplying information that can be recognized by an experienced and symmetrical state with the direction of the expressed symptoms. The attempt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d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gave provided the underlying psychological spokesman for the analysis of human society, including the Sewol ferry of Korea-type disaster. There are also presented some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effectively to give more psychological approach to future risk reduction and safety enhancement. In addition, this study through the various views presented by a comprehensive existential subject of several ways to adjust the status Theme conditioning method (Theme Condition Adjustment Theory: TCAT)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expecting it to be that.

Key words : Safety, Risk, Existential, Theme, The Sewol ferry